

# 『2006년 안전경영대상』 종합대상에 금호산업(주) 고속사업부 수상

노동부와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주최하는 『안전경영대상』 시상식이 2006년 12월 서울 중구에 있는 매경 미디어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상수 노동부장관,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회장 및 문형남 매경안전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하였다.

안전경영대상은 안전경영 유공기업을 포상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CEO의 안전인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1993년 도입된 이래 이번이 14번째이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안전경영에 우선적 가치를 두고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한 공로가 큰 6개 사업장이 대상(大賞)을 수상하였다.

특히, 뛰어난 안전경영으로 무재해를 기록한 금호산업(주) 고속사업부 기흥정비사업장이 영예의 “종합대상”을 수상하였다.

기타 부문별 大賞은 ▲제조업 대기업부문에 두산인프라코어(주)창원공장, ▲제조업 중소기업부문에 호성케맥스(주)여수공장, ▲건설업 건축부문에 진흥기업(주) 전주효자동 아파트건설공사1공구현장, ▲건설업 토목부문에 (주)한진중공업 건설부문 부산-울산고속도로 2공구현장, ▲전기 가스수도업 부문에는 한국중부발전(주) 서천화력 발전소가 각각 받았다.

또한, 특별상으로 현대건설(주) 박경호상무가 기술상을, 삼성물산(주)건설부문 김유택상무가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영예의 “종합대상”을 차지한 “금호산업(주) 고속사업부 기흥정비공장(대표 : 이원태)”은 산재발생경험자를 중심으로 SMT(Safety Management Team)를 구성하여 현장안전감독관 활동을 전개하고 근곡격계 질환예방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업무효율화를 높이는 등 산재예방에 적극 노력한 것이 수상이유이다.

금호산업(주)고속사업부 관계자는 “이번수상을 계기로 안전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해 우리나라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이날 치사를 통해 “안전보건문제는 기업의 신인도와 바로 직결되어 기업 이미지에 큰 영향을 주게 되므로, 「안전경영」이야말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하면서 “정부는 노사가 협력하여 산재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비정규직, 고령자 등 산재취약계층 안전보건관리와 대형사고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화학물질 유해위험 그림 표시, 국제기준에 맞게 바뀐다

화학물질의 유해·위험경고 표시 기준이 국제 기준(GHS :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등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으로 새롭게 바뀐다.

노동부는 그 동안 정부 부처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던 화학물질의 유해위험표시를 하나의 통일된 기준으로 바꾼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을 개정하여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화학물질의 독성, 발암성 등의 유해·위험정보를 나타내는 그림문자를 일반인이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 형태를 바꾸었다.

또한, 화학물질의 경고표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유해·위험 정도, 예방조치 문구 및 공급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표시토록 하였다.

화학물질의 분류기준도 화학물질의 성상(가스·액체·고체 등)에 따라 유해·위험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 현행 15가지를 27가지로 세분화하여 유해·위험정보가 근로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였다.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 MSDS) 작성 시에도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이 먼저 드러나도록 유해·위험성 정보를 구성성분의 명칭보다 앞서 기재토록 하였다.

그리고 사용해서는 안되는 용도(사용상의 제한) 및 화학물질 사용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특정 유해성(예, 연소시 발생 유해물질) 등도 기재토록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사업장에서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오는 '08년 6월 말까지는 현행 표시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동부 김동남 산업안전보건국장은 “그 동안 화학물질의 유해·위험 정보 전달 방식이 부처마다 서로 달라 표시의 이중 제작·부착, 정보 전달의 혼선이 있었다”며, “이번 국제기준에 따른 통일된 기준 마련으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고 유해·위험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어 재해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본지 “New! 안전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인산에 외국인 근로자지원 센터 설립

우리나라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언어소통, 법률관계 등 생활 상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2006년 12월 15일 경기도 안산에 설립되었다.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지난 '04년 서울 대림동에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설립된

이후 두 번째이며, 경기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해당국 언어를 통한 콜센터 운영, △고충상담, △한국어, 컴퓨터 및 생활·법률교육과 △한국문화 등을 강습한다. 또한, 국가별 공동체 모임실, 음악연습실, 방송실, 쉼터 등의

시설을 갖추었다.

센터는 합법적인 체류·취업자격을 갖춘 외국인근로자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불법 체류자에 대하여는 출국지원 상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설립된 센터는 고용보험기금에서 30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감독 및 예산집행 등을 책임지고 있다. 센터 운영은 『(재)대한예수교장로회서울노회 유지재단(대표 : 안승환)』에서 한다.

한편, 센터 개소식에는 김성중 노동부 차관을 비롯하여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 장경수 열린우리당 의원, 김용달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주한 외국공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각종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외국인근로자가 밀집되어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센터를 추가로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 산재보험 “찾아가는 서비스” 효과 높아

제도시행 1년 만에 직업복귀율, 서비스 만족도 높아져 매년 17~20% 증가하던 보험급여도 4.1% 증가로 크게 둔화 되었다.

산재보험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한지 1년이 지난 현재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율이 증가하고, 산재환자 서비스도 만족도가 크게 증가하는 등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05년 10월부터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율이 지난해 42.3%에서 2006년 8월, 현재 46.0%로 8.7% 증가하였고, 산재요양 결정 민원처리기간도 73일에서 60.7일로 16.8%단축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매년 13~15%씩 증가하던 평균 요양기간도 올해에는 2.4% 감소(05년 267.2일→06.1~8월 260.7일)하였고, 산재보험 서비스에 대한 산재환자의 만족도도 2005년 7월 39.6%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 11월에는 46.6%, 2006년 6월에

는 73.7%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매년 17~20% 증가하던 보험급여가 지난해에는 5.8% 증가(30,257억원)에 그쳤고, 올 8월 현재까지는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여 4.1% 증가(20,847억원)하는 등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그 동안 산재보험의 요양·보상업무가 산재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재활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산재환자 및 의료기관 관리도 취약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지난해 10월 산재보험 혁신차원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최초 재해발생부터 치료, 재활, 사회복귀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산재환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상조직을 재해조사·현장서비스·급여지급팀으로 구분·운영, 기능별로

전문화 하였고, 최초 재해발생시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직접 방문하여 재해조사를 하는 등 업무상 재해 여부를 신속·공정하게 판단하고 있다.

또한, 요양중인 산재환자에 대해서는 보상업무 경력자·간호사·재활상담사가 한 팀이 되어 직접 상담을 실시하여 상병상태·치료기간 등에 따른 적정치료를 유도하고, 재활·직장복귀 지원

등 산재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간호사 120명, 재활상담사 37명 등 현장서비스 인력 252명을 증원하여 현장에 투입하였다.

아울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산재환자가 우수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산전후휴가급여 타가세요

노동부에서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드립니다

노동부는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들이 빠짐없이 고용지원센터에서 당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을 전후하여 90일의 산전후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90일의 휴가기간 중 60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여성근로자 고용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중소기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는 90일분의 급여 모두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제도를 확대하였다.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은 산전후휴가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사업장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휴가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이다.

한편, 지난해 11월말 산전후휴가급여는 44,688명에게 816억원을 지급하여 2005년에 비해 수급

자는 8.7%, 지원액은 77.2% 증가하였다.

또한, 1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근로자는 남녀 구분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급여를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지난해 11월말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12,502명에게 314억원을 지급하여 지난해에 비해 수급자는 16.8%, 지원액은 11.1%가 증가하였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하면 된다. 영아가 생후 1년이 될 때('08년부터 생후 3년)까지 사용한 육아휴직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노동부가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들도 급여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생활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